



안전으로 세상(世)의 정상(頂)에 서다

(주)플러스세정

취재 | 최종덕 기자



차 상 훈 대표이사

경영자가 나서야 안전이 산다

종종 주변 회사나 동종업종 등의 경영진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경영자 변해야 한다는 것'과 '경영자가 나서야 한다는 것'

경영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은 십사리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한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나아가 필히 개선이 있어야할 시안에 대해서조차 근로자로 하여금 침묵을 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 복지 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하면 그것은 좋은 일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놓여있을 때 최고의 생산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환경을 구축하려면 경영자가 끊임없이 근로자와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해야 합니다. 즉 경영자가 먼저 나서서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근로자도 마음을 열고 경영자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의 모합(mock up, 시제품의 모형을 만드는 것) 회사 (주)플러스세정. 이곳의 기술력과 생산력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우수하다. 거래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삼성전자와도 협력사 관계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을 정도.

하지만 이곳이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려 온 것은 아니다. 처음 업계에 뛰어 들었을 때만 해도 가진 것이라고는 열명도 채 되지 않는 직원과 작은 사무실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플러스세정의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에게는 늘 자신감이 넘쳤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열정을 믿었고, 언젠가는 분명히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이들이 그 무엇보다 자부심 넘치게 생각했었던 것은 바로 '안전'이었다.

작업환경이 안전하고, 근로자가 건강할 때만이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의 경영방침이다. 이러한 확고한 방침 아래 이곳은 지속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겼다.

안전!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야

대다수 우수 안전기업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은 경영진들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역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 경영자인 차상훈 대표이사는 '안전의 생활화'를 경영방침 전면에 내세우고, 안전활동의 최일선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직원들도 따라온다는 것이 그의 안전철학이다.

그는 매일 1회 이상 사내 안전점검에 직접 나선다. 회사 구석구석을 살펴며 위험요인은 없는지,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점검활동과 겸해 직원들과의 안전대화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이 때 그가 가장 강조하는 말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라'이다. 사업장의 안전은 '깨끗하고 청결한 작업환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이런 그의 활동은 단지 활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각 체크하여 안전회의 때 직접 제안한다. 실제 이곳 현장에서 안전관련 기획안을 가장 많이 제출하는 사람은 바로 최고 관리자인 차상훈 대표이사다.

전방위 안전활동 펼쳐

이곳의 공정은 원청회사에서 제품의 디자인을 주면 그 디자인을 적용한 시제품(모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공정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작업이나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위험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제조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곳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완벽을 기하고 있다. 공정 내 전기계·기구에 안전설비를 갖춰 놓은 것. 심지어 작업도중 직원들이 미끄러질까봐 모든 기계 앞에 샌드페이퍼를 붙여 놓았고, 기계의 점검을 할 때 큰 위험성이 없음에도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 착용은 이곳의 철칙이다.

수작업과 관련해서 철저한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작업은 말 그대로 사람에 의한 것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때문에 이곳에선 충분한 휴식시간과 가정처럼 편안한 휴게시설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최상의 몸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환기시설이 좋지 않아 공기의 질이 떨어져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 전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작업도 실시한 바 있다.

직원을 위하여! 그러면 안전이 온다

이곳 사업장에선 6년째 크고 작은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6년 전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직원들의 여타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다 보니 공사가 점점 확장된 것.

여기에서 보듯 이곳은 안전이나 복지 등과 관련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긴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할 때 생산의 질이 우수해진다는 것을 이곳 임직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금연, 다이어트 활동 등에 성공 포상금을 주는 등 직원들의 건강과 관련한 사안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직원들 또한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일까 이곳 직원들의 높은 충성도는 동종업계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이처럼 이곳은 안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두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주)플러스세정이 그 이름 世頂(세정)처럼 세상의 최정상에 설날도 머지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